

氣火濕痰으로 인한 中風內因發生說의 相關性에 對한 考察

卓宜洙·姜允皓*

I. 緒 論

腦血管의 疾患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頭痛, 眩暈, 意識 및 運動·言語障病, 偏麻痺等 各種 神經系의 症狀을 急速히 發顯하는 것^{6, 11)}으로 定意한 腦卒中은, 韓醫學에서는 中風의 範疇에 歸屬^{1, 10, 11, 12)}시켰고, 그 病證과 病因 中心으로 볼때 風病은 물론 熱(火)厥病 三陰三陽等으로도 認識하여 論述한 例를 많이 볼수 있다.^{5, 10, 31, 38)}

時代의으로 生活環境 및 思考의 差異로 因해 本疾患에 있어 病機認識 및 中風概念 設定에 多樣性과 相異性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 그 證狀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內經에서는 『風從外入 令人振寒汗出...』의 外因說과 『諸風掉眩 皆屬于肝, 諸暴強直 皆屬于風, 內奪以厥逆, 陽氣者 大怒則形氣絕而 血宛于上 使人薄厥, 仆擊, 偏枯, 肥人高粱之疾』⁸⁾의 人體 內的인 發生에 對해서도 說明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³⁹⁾

이러한 中風發生素因과 더불어 金¹⁰⁾은 中風의 病因 病理에 關해서 具¹¹⁾는 腦卒中의 臨床的 研究를 통해서 中風病機를 理解했는데, 위의 研究論文과 歷代 各種 文獻의 考察을 通해 볼때 黃帝內經以後 六淫의 外因의 要

素와 內因의 事項이 混在되어 設定된 中風 發生에 있어, 金元時代에 劉³⁴⁾, 李³⁰⁾, 朱³⁵⁾는 中風症狀의 根本的인 病因을 各各 火, 濕, 氣라는 人體의 病機因子를 中心으로 그 病因 病理를 說明했다.

中風 發生의 素因에 對해 外臺秘要에서 許³⁹⁾는 『飲食 思慮 勞役 失於養生』等을 言及 하였고 또한 劉³⁴⁾ 李¹⁹⁾ 龔¹³⁾ 周²⁶⁾ 등이 위의 原因은 勿論 五志過極 七情鬱結 等 이른바 스트레스가 重要한 先驅原因이 됨을 強調하였다¹⁰⁾.

이러한 素因이 어떠한 過程을 通하여 中風을 일으키느냐 하는 問題는 東西醫學的으로 治療過程에 앞서 豫防醫學的 側面에서도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韓醫學에서는 이에 對해 主火論과 主氣論의 側面과 그리고 厥逆等의 事項에서 理解하려고 했으며 이는 廣義的으로 볼때 『腎水虛衰 心火暴甚 水不制火』³⁴⁾ 『氣血逆難』²⁰⁾ 等 氣血의 升降失調 病理過程이 理論的 背景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西醫學에서는 高血壓과 動脈硬化 心臟病 糖尿等에서 派生되는 合併症의 所產^{5, 6, 11)}으로서 또는 過勞 스트레스 等이 直接的 誘引因子가 되어 腦壓의 上升 및 腦血管의 病理過程으로 說明^{5, 6)}하고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있는데 이러한 多樣한 中風發病 病機를 韓醫學에 있어서 核心原理라 할수 있는 氣化學說을 中心으로 散在되어 있는 各各의 病因說을 綜合적으로 檢討 分析하고 아울러 臟腑의 氣가 그 運動과 變化 轉化되는 過程에 있어서의 病理現象과 結付시켜 濕痰火氣等의 中風 病因要素가 어떠한 影響을 미치며 아울러 이들 病因因子들의 相關性에 對하여 有關文獻을 통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 中風의 內因病理 *

風에 對하여 內經 陰陽應想大論에서는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으로 說明하여 人體外의 六氣의 側面에서 正常的인 調和에 依한 人體內에 生長化收藏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論하고 있고 또한 六陰의 病邪의 側面에서는 『百病之長』으로서 寒熱과 熱中 疫風 偏枯等의 症狀과 虛邪賊風으로서 肺 腎 肝 脾 風等 先行數變의 特性으로 多樣하게 設定²⁹⁾하고 있는데, 이는 人體에 對한 原理가 韓醫學에 있어서 天人相應學說³⁰⁾에 根據하고 있음을 反證한다.

中風의 內的인 病理의 研究에 있어서 內經素問 至眞要大論에서는 『諸風掉眩 皆屬于肝 諸暴強直 皆屬于風』으로 記錄³¹⁾하고 있는데 葉天士^{10, 32)}는 이에 相關의 內風으로서 肝風의 概念으로 받아들였고 中醫內科學³³⁾에서는 肝陽火風 熱極生風 血虛生風의 內風으로, 章³⁴⁾은 이에 對해 具體的으로 肝陽化風은 肝陽亢盛으로서 肝陰이 無力하여 制約되지 못한 狀態에서 나타난 風動의 病變이고 熱極生風은 高熱과 久熱로 因해 津液이 耗損되고 肝陰이 損傷을 받아 肝陽偏亢되어 筋

脈이 失養되어 風動되어지는 傾向으로, 肝(腎)陰血虛하여 肝陽亢性이 惹起되어 風이 化生되는 것으로 內風은 곧 肝風을 意味하는 것으로 風證의 內的 病理를 說明하였다.

內風이라는 用語는 內經³⁴⁾ 風論에서 『入房汗出中風 則爲內風』으로 나오며 後代 內風과는 差異가 있고 現代 腦卒中으로서의 中風은 金櫃要略³⁵⁾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文獻을 살펴보면 “風에 있어서 그 病이 됨은 마땅이 半身不墜인데 或은 臂不墜者는 痺症이 되고 脈이 微弱하고 빠른 것은 中風에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를 章³⁶⁾은 人體 내에서 發生되는 內風으로 보았다.

千金要方에서 孫³⁷⁾은 中風의 症狀를 四가지 偏枯, 風痺, 風痲, 風懿로 分明히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劉³⁸⁾는 위의 中風의 內的 病機와는 相異하게 河間六書에서 “中風癱瘓은 肝木中風이 아니며 外來風邪도 아니다. 이는 人體의 精神과 肉體의 生命營衛活動에 있어서 그 마땅이 할 도리를 잃고 心火가 暴甚하고 腎水가 虛衰하여 이를 制止하지 못하고 陰虛陽失하여 人體內에 熱氣가 拂鬱되어 心神이 어지럽고 희미하게 되어 肉體가 올바로 지탱을 못하여 쓰러지며 意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五志(喜 怒 悲 思 恐)의 지나친 不節制로 因하여 內熱이 甚하여 이루어지는 病이다”라고 하였고 李³⁹⁾는 “中風이라는 것은 外部에서 들어오는 風邪가 아니며 人體內에 存在하는 本來의 氣에 의해 派生되어지는 病이다. 사람의 나이가 四十이 넘으면 氣가 衰弱해지며 各種 心理的 要素(七情)에 의해 氣가 傷하게 되어 發病되게 되고 或은 肥滿한 者가 發病되는 理由는 살찌게 되면 氣循環이 안되어 氣가 衰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朱³⁵⁾는 風病은 風邪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濕이 痰이 되고 痰이 다시

熱을 生成시켜 風이 發顯되는 것으로 畧고 張²⁰⁾은 內奪과 厥逆에서 氣血의 病機 則 氣脫 元氣 不足 氣血逆難等에서 卒然仆倒 等の 中風을 論했고 葉은 肝陽偏亢으로 因한 內風發生에서 張路玉²¹⁾은 腎氣虛衰에서 王²²⁾은 元氣絶衰와 無氣不能動의 觀點에서 說明하였다.

劉河間

風者言末 而忘其本也 所以中風癱瘓者 非謂肝木之風 實甚而卒中之也 亦非外中于風 爾由乎將息失宜 腎水虛甚則 而心火暴盛水不制火 則陰虛陽實而熱氣拂鬱 心神昏冒 筋骨不用 而卒倒無所知也 多因 喜怒思悲恐之五志 有所過極而卒中者 由五志過極 皆爲熱甚故也 風本生於熱 以熱爲本 以風爲標 凡言風者熱也.

肥人多中風 由氣虛非也 所謂 理緻密 而多鬱滯氣血 難以通利 故多卒中也

許仁則

諸風 其源也 俱失於養生 本氣既羸 偏有所損或以男女 或以飲食 或以思慮 或以勞役 既極於事.

李東垣

「中風者 非外來風邪 乃本氣病也. 凡人年逾四旬氣衰之際 或因憂喜憤怒 傷其氣者 多有此疾 壯歲之時無有也 若肥盛則間有之 亦是形盛氣衰而如此.」

* 其他 醫家의 病因 病理 *

聖惠方

臟腑久虛 氣血虛弱 奏理開洩 陰陽不和 眞氣散失 營衛虛竭邪氣毒風 從外而入 傷於經絡 故名卒中風也.

張子和

風者 風必熱相兼… 故善行而數變者 皆厥陰肝之用也. 夫肝木所以自盛 而至此者 非獨風爲然 蓋肺金爲心火所制 不能勝木故也.

嚴用和

或喜怒憂思驚恐 或飲食不節 或勞役過傷 遂致眞氣先虛營衛失度 奏理空疎 邪氣乘虛而入 及其感也 爲半身不遂.

盧天民

中風之證 蓋先傷於內 以後感於外之候也 古人論中風者 言其證也 三先生論中風者 言其因也 王安道 有論三者 主氣 主火 主濕之不同 而與昔人 主風之不合 而立眞中類中之目岐二途 愚叫疑焉 夫中風外候既若是之相牟 而病因又何其弱彼之異耶 盡因風濕痰火挾虛而作.

李挺

中風卒倒 分眞似 主火 主氣 主濕 內傷兼中似中 盡相須. 三者所主 雖殊而實同也 况濕則中氣不運 而生痰 痰因火動 而生風 又兼二子之見也. 氣血壯盛奏理緻密 邪不能入 惟中年氣血始衰 奏理空疎加以七情勞役 飲食內傷 元氣 門巷賊風乘虛 襲入臟腑血脈 故有兼中者 東垣所謂 非外邪徑傷 內本氣病也.

孫一奎

中風蓋因 先傷於內 以後感於外 相兼成病者也 由人元氣素虛 奏理疎豁 衛弱失護 一遇風邪 莫之能禦故 中風相類者 則有中寒 中暑 中濕 中火 中氣 食厥 勞傷 房勞 等證.

龔廷賢

眞中風者 素體氣虛弱 營衛失調 或喜怒憂思悲恐驚 或酒色勞力所傷 以致眞氣耗散 奏理不密風邪乘虛而入 乃其中也.

中風 此因房事六慾 七情所傷 眞氣虛 爲風邪 所乘客于五臟之俞 則爲中風偏枯等證.

楊禮壽

氣體虛弱 營衛失調 七情勞役 眞氣耗散 奏理不密 邪乘虛入而中也 蓋先傷於內 以後感外之後也 中風言其證也 火氣濕其因也.

李中梓

風若不從鄉來者 名爲虛賊風 害萬物 體虛者則中之 當時未必即發 重感風邪 病遂發焉 中風多從藏府 背俞入者也。

類中風之因 將息失宜 勞役過度…

最要分別 閉與脫二證明白如牙關緊閉兩手握固 即是閉證口開心絕手撤脾絕 眼合肝絕 遺尿管絕 聲如鼻干肺絕即是脫證。

陸九芝

河間主火說也 至東垣則以氣言 氣因火鬱也 丹溪則以痰言 痰因火結也 二子者 雖一主氣一主痰 實皆主火 而亦皆爲通論 蓋人身無內風不招外風 無內火 不起內風 風由於火 火又生風 風火交煽 風爲標 而火爲本。

周命新

中風由其氣體虛弱 營衛失調 致使經絡空疎 奏理開徹 風邪乘虛而作也。

類中風者 病非中於風 皆因七情過極 過於飲食 內虛受寒 飲酒過多 勞役過度 房勞過多 五志過極。

徐靈胎

飲食七情 色慾勞傷 眞元耗損 則營衛空疎 邪乘虛入也 所以氣虛之人 衛外不密 則外風易入 血虛之人 肝木不平則內風易作。

沈全魚

中風乘虛而爲病也 向來惟東垣主虛 而河間則主火 丹溪則主痰 似乎各異 不知由虛也 故無根之火發焉 惟虛也 故逆之痰生焉 特東垣舉其本 河間丹溪各舉其標耳 未有痰與火之發不由於虛者也。

張錫純

中風之證 多因五內大虛 或乘賦素虛 或勞役勞神過度 風自經絡侵入 直透膜原而達臟腑 令臟腑各失其職。

內經之所謂厥證即腦充血 河間之主火爲內

充血 東垣之主氣爲腦貧血 內經曰 上氣不足…腦貧血。

王清任

半身不遂 虧損元氣 是其本源 夫元氣藏於氣管之內 分布周身左右各得其半…元氣衰則無力 元氣絕則死…左半身無氣 無氣則不能動 不能動 名曰半身不遂。

III. 考 察

中風 發生의 重要 要因에 있어 黃帝內經에서 現在 中風(腦卒中)에 該當되는 偏枯 仆擊 暴病卒邪 身偏不舉等의 症狀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素問⁸⁾의 生氣通天論에서는 『陽氣者 大怒則形氣絕而血宛于上 使人薄厥』至眞要大論에서 『諸逆衝上 皆屬于火』 등으로 言及하고 있는데 이는 人體內에 있어 氣化運動 即 精氣津液血脈等의 要素가 相互化生轉化하는 能動的過程에 있어, 그 運動失調로 因해 惹起되는 病理狀態를 說明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人體內的 氣化의 規律은 六合(上下左右表裏)內에서 升降과 出入의 運動이 亢則承承乃制의 相互對立과 抑制의 規律을 通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過程에는 水火라는 對象이 設定되어있고, 陰陽의 運動으로 볼수있는 氣 升降의 過程에 그 徵兆인 水火 升降活動을 言及했는데 바로 이러한 水火 相濟의 失調가 廣義의인 側面에서 疾病發生의 根幹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나아가 中風病機의 根本的 概念을 內經의 內因論의 觀點에서 考察해보면 바로 이러한 韓醫學의 原理下에서 七情鬱結로 因한 火氣上逆 氣逆 厥逆等의 含蓄된 意味로서 論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臟腑中心의으로 볼때 運動과 變化 多變性

의 屬性은 風의 範疇로서 包括하고 있으며 이러한 風證은 肝에 歸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諸風掉眩皆屬于肝…諸暴強直 皆屬于風：至真要大論』은 바로 이러한 認識이 後代에 『身中陽氣之變動 肝爲風臟 因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로 主論한 葉天士^{10, 39)}의 中風病理說과 最近 中醫 內科學^{22, 31)}에서 肝風內動에 根據한 中風病因 病理의 理論에 影響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肝에 關聯된 中風의 病理를 氣化學說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葉天士³⁾는 “肝氣는 左를 따라서 上升하고 肺는 右를 따라 下降하는데 이러한 升降運動에 의해 氣機가 펼쳐지며 人體의 精氣輸布流行에 있어서 肝肺가 樞轉이 되고 肝氣는 上升하여 頭部와 上竅까지 이르게 되고 肺氣는 下降하여 臟腑 筋骨까지 달게 되어 氣血이 流暢되고 臟腑의 圓滑한 機能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肝은 陽動的 條達의 特性을 지니고 있어 氣鬱滯의 狀態가 升降失調의 主된 要因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醫方集解⁴⁰⁾에서는 『肝血不足 風熱勝而金燥 故外見皮毛枯槁 肌膚燥癢 內有筋急 便秘之證』으로 言及하여 肝肺升降失調 相互 病症을 說明했는데 이는 實際 臨床에 있어서 中風後遺症에서 나타나는 脫症 閉症症候群 則 偏枯 筋急不利 痿厥 麻木症狀等이 肝血不足의 形證을 띠고 있으며 나아가 治法治方에 있어 潤燥湯 滋燥養榮湯의 應用에 理論的 根據가 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위에서 言及한 腎水와 肝血의 相互 機能失調에 의해 惹起되는 肝風病理說을 否定하고 心火暴甚으로 因하여 惹起되는 이른바 主火論的 側面에서 中風病機를 設定한 學者가 劉完素³¹⁾이다.

劉의 理論에 對해 詳述하면 風의 發生은 外臺秘要에서 許²⁹⁾가 言及한 것처럼 飲食 房勞 思慮過多 等 養生失調로 因한 氣機鬱滯에

그 原因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氣鬱滯는 心火를 暴甚하게 하고 이때문에 腎水가 虛衰하여 陰虛陽實 이는 다시 熱氣太過의 病症樣態에 依해 中風이 發頭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氣化 臟腑升降原理를 中心으로 살펴보면 心腎은 升降의 根本으로, 寒熱病象의 根源도 心火와 腎水의 關係로 認識되기도 하는데³⁾ 心腎의 升降失調는 心腎不交로 이어지고 陰陽의 徵兆인 水火便乘의 狀態를 招來한다.

따라서 劉³¹⁾의 主論의 核心은 火의 病因에 中心을 두고 心腎升降失調의 病理로서 中風의 本質을 火가 惹起시키는 初期 標實證의 側面에서 強調하려는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中風의 病症樣狀은 暴急性과 陽動性 多變性を 綜合해 볼 때 六氣中의 風의 範疇에서 보는 解釋이 支配의이며 특히 臟腑學的으로 볼때 肝木은 腎水의 滋潤을 받아 升發 疏泄하는 機能을 얻게되며 또한 肝과 筋의 相關的 側面에서도 理解될 수 있듯이 中風病 發頭에는 火가 그 要因이 된다는 主論에는 病因論的 側面에서 妥當性이 認定되나 氣化學說과 中風病態의 側面에서 보면 肝木의 概念을 除外할 수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中風認識에 있어 劉³¹⁾의 概念은 所謂 主火論的 側面 即 火에 多少 置重되어 疾病狀態를 精氣虛의 次元보다는 火鬱 實證의 側面을 強調한 것으로 思料된다. 넓은 意味에서 위의 理論을 綜合하면 中風은 結局 氣機升降失調 水火偏勝의 過程에서 惹起되어지는 人體 病理狀態의 한 例라고 할 수 있겠다.

中風의 病理에 있어 『本氣』病의 用語를 設定한 文獻의 始初를 著者는 外臺秘要 許²⁹⁾의 主論에서 처음으로 알 수 있었는데 以後 本氣病에 入脚하여 中風病理를 設定한 學者가 李東垣³⁰⁾이다. 李³⁰⁾는 疾病의 總體의 事項

에서 外感八風에 起因된 病症은 有餘之症으로, 內傷飲食不節과 過勞에 依해 起因된 病症은 不足之病으로 보았다.

李³⁰⁾의 中風 理論에 對해 詳述하면 中風의 發生을 人體 內部的 虛의 觀點에서 보았는데, 七情의 失調에 依해 人體의 本氣가 傷하여 派生되는 病理를 說明했는데 여기서 注目할 만한 事項은 李³⁰⁾는 肥人 中風發生에 있어 形盛氣衰의 觀點에서 劉³¹⁾는 鬱滯 氣血의 觀點에서 서로 다른 角度에서 病機를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差異點의 背景에는 劉³¹⁾는 氣鬱滯 血熱 이로 因한 心火의 太過로 認識 全般的인 病理認識에 있어 火의 觀點에서 主論한 것으로 볼 수 있고 李³⁰⁾는 內氣損傷 即 本氣虛의 觀點에서 이루어지며 脾胃를 中心으로 한 氣의 升降失調에 있어 中點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事項에 對해 좀더 具體적으로 살펴 보면 위에서 言及했듯이 肥滿한 者가 中風이 發病하는 內的인 病理機轉에 있어서 劉³¹⁾는 氣鬱滯氣血 難以通利의 觀點에서 氣虛가 아닌 事項에서 主張하였고, 李³⁰⁾는 形盛氣衰 氣虛의 觀點에서 主張하여 서로 다른 側面에서 疾病病機의 接近을 試圖 했는데 이는 同一한 觀察對象에 있어 接近 方式의 多樣性의 表出로 보아지며 具體적으로 醫學的 辨證原理에 있어 劉³¹⁾는 實證의 側面에서 強調하였고 李³⁰⁾는 虛證의 側面에서 氣機升降失調를 強調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差異에 대한 認識 및 臨床의 活用은 人體에서 發頭되는 各種八綱 病症을 綜合시켜 檢討해야 될 것으로 思料된다.

中風病理過程을 痰을 中間 先行過程으로 設定한 學者가 朱丹溪³²⁾인데 『有風病者 非風也 皆濕生痰 痰生熱 熱生風也』라고 했는데 이는 人體內的 痰飲의 停滯로 派生되는 熱의 生成과 同時에 風의 發頭으로 이어지는 病

理過程을 說明한 것이다.

中風病理의 內因에 있어 厥逆의 側面에서 詳述한 學者가 張介賓²⁹⁾인데 張은 七情內傷 素不能慎 酒色過度로 因한 五臟의 眞陰이 虧損되고 年老氣衰等이 中風의 素因으로서 內奪厥逆의 病症으로 中風의 病理를 說明하였다.

이의 病理過程에 對해 具體적으로 살펴 보면 厥逆症은 內奪의 概念이다. 人體 氣血의 運行過程에 있어 氣虛하면 血의 運行過程도 可能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氣滯하면 血滯하는 故로 氣血敗亂의 狀態가 惹起되고 同時에 氣奪의 事項으로 빠져들어 廣義적으로 陰陽 上下運動의 失調, 人體 構成要素에 보면 陰陽의 不調로 因한 氣奪 血奪 精奪로 이어지는 一連의 病理過程이다.

따라서 張²⁹⁾의 中風理論도 氣化學說적으로 보면 여러 要因에 의해 人體 氣機의 升降失調로 因한 病理事項임을 알 수 있다.

以後 張路玉²¹⁾도 中風의 病理에 있어 火痰의 病機素因은 眞氣內虧 腎氣 損傷되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봤고 王清任²⁸⁾은 元氣虧損으로 設定하고 人體 氣의 所失이 半身不遂를 招來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金樞要略 外臺秘要以後 龔¹³⁾ 孫¹⁵⁾ 楊¹⁰⁾ 등의 中風主論을 살펴보면 中風의 發生先行 要因은 體氣虛弱 眞氣耗損 氣體虛弱 등으로 보고 있으나 中風의 病機를 外에서 內로 들어오는 病邪 進入方式을 設定했다. 金元時代以後 人體 疾病에 對한 內因的 推論이 活潑하여 臟腑의 氣化學說에 根據한 氣血의 循環障礙에서 派生되는 病理過程의 說明이 活潑하였는데 이러한 時代의 背景에도 不拘하고 疾病推論方式이 外邪誘入으로 展開시킨 점에 對하여 檢討 되어야 할 必要性이 擡頭된다. 이는 實際 臨床에서 消風 祛風 抽風의 治法이 活用되고 있고 中風의 初期病症이

營衛失調와 標實證의 複合의인 事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治法의 體系의 對應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中風誘因에 있어 風邪를 外部에서 內로 直入시킨 理由중에는 韓醫學이 天人相應說을 바탕으로 自然現象과 人體의 調和를 圖謀하였으며 陰陽五行學說을 바탕으로 六氣的 側面에서 六淫의 外邪의 要因이 人體內部로 들어오는 六經轉變의 疾病觀이 優勢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風邪는 六淫中의 하나로써 傷寒論에서 傷風의 概念이 混在 되었으며 臨床에 있어 初期에 標實證의 症狀에 風邪를 外部로 發散하여 祛邪하는 治法이 活用되고 있는 점이 그 하나의 理由가 될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疾病의 素因을 內部的 여러 要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外邪가 들어오는 觀點에서 疾病傳變過程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櫃要略과 諸病源候論 千金要方에서는 이러한 側面에서 立論된 것으로 思料되며 以後 이러한 主論을 바탕으로 以後 李挺³²⁾ 孫一奎 龔廷賢³³⁾ 徐靈胎³⁴⁾ 等이 中風立論에서 같은 側面에서 說明하였고 한편 章³⁵⁾이 風火痰癆論에서 「金櫃에서 風을 論한 것은 內風이다」라고 한 것도 時代的으로 外內의 混在된 立論 方式이며 嚴格히 말해 內風이라 함은 內因要素를 重視하여 본 見解이다.

中風의 病理에 腦와 關聯시켜 說明한 學者가 張錫純³⁶⁾인데 張은 이러한 外內 混在된 狀況을 구분하여 河間의 主火論, 東垣의 主氣論, 厥病, 內經의 上氣不足에서 惹起되는 內風은 人體 內에서 發生되는 것으로 主張하였다.

內因說에 있어 火氣濕의 要因은 各 學派의 主論에 따라 中風病機의 要素로서 各其 달리 設定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세가지 要因에 對하여 以後 學者들이 火氣濕의 內

的病因要素를 同質의 事項으로 認識하려는 思考가 대두되었다. 그 例를 보면 이는 醫學入門³⁷⁾에서 『河間の 主火와 東垣의 主氣 丹溪의 主濕은 內傷이 兼하여 서로 連鎖的인 關係에 있다. 이 세 要因은 비록 그 主論이 다르나 事實 同質의 것이다. 濕하면 中氣가 不運되어 痰을 生成시켜 痰은 火로 因하여 風을 發生시킨다... 中年에 氣血이 始衰하여 奏理가 空疎하고 七情 勞役 飲食의 不節로 因하여 內傷元氣하면 賊風이 侵入하여 兼中이 되는 境遇는 外邪가 直傷하는 것이 아니라 東垣의 이른바 本氣自病인 것이다.』라고 하여 氣火濕의 相關의 側面에서 設定하였다. 陸九芝³⁸⁾는 『東垣의 氣說에 對하여 氣는 火鬱로 因한 것이며 丹溪의 痰에 대하여 痰은 火結로 因한 것으로 主氣와 主痰은 火가 實體가 되고 人體에 있어서 內風이 없으면 外風을 받지 아니하며 內火가 없으면 內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火의 觀點에서 氣火濕의 相關性을 吡력하였다. 한편 沈³⁹⁾은 劉의 主火論과 丹溪의 主痰論은 虛에서 이루어지는 無根之火로서 虛가 그 本體로서 東垣의 本氣虛에서 派生된 主氣論이 그 根本이 되고 主火 主痰은 그 標라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主張은 各其 論理 展開의 差異性은 있으나 그러한 立論에 있어 그 妥當性은 認定되며 이는 對象考察의 한 方法論으로서 同時에 韓醫學의 理論展開의 多樣性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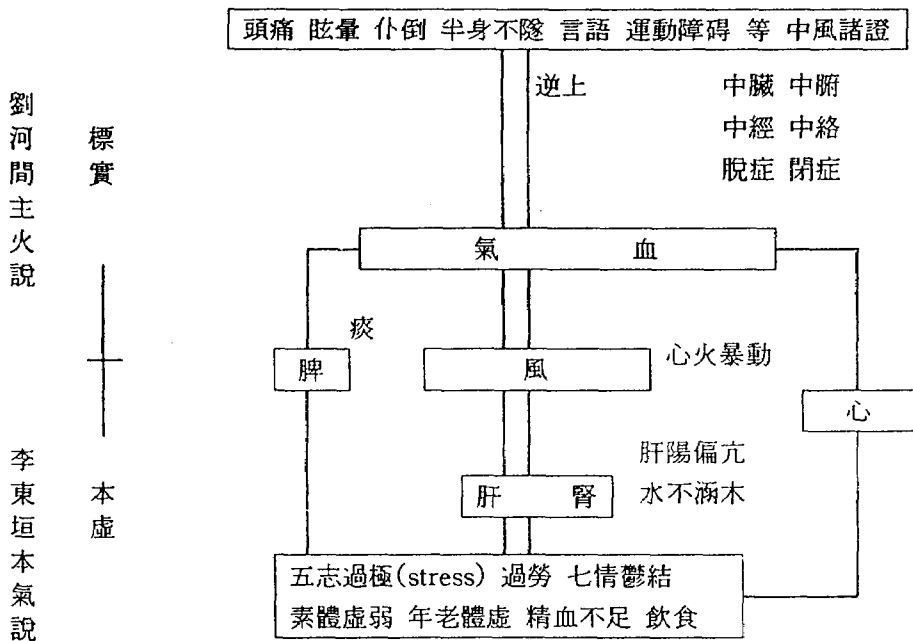
위에서 言及한 中風 內因에 對한 諸家 理論을 綜合해 보면 비록 그 病理展開에 있어 差異를 두고 있지만 共通의인 事項은 中風의 根本原因은 七情 過勞 飲食不節 等이며 이는 오늘날 腦卒中의 先行要件으로 보는 스트레스와 肥滿 高コレ스트롤 이로 因한 高血壓과 相關性을 지니고 있고 이 高血壓을 中醫病 因病機學¹⁷⁾에서는 肝腎의 陰陽平衡失調 肝陽

亢升 火氣逆上等으로 中醫內科學^{22, 311}에서는 그 病理過程을 由實而虛 初爲陽亢 繼而陰虛 陽亢 再而陰虛 最後陰陽虛로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廣義的으로 中風에 있어 氣化 升降失調의 不均衡으로 이루어지는 疾病觀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中醫病因病機學¹⁷⁾에서는 火에 對하여 火極生風으로 說明하였고 “熱이 盛하여 火가 이루어지며 火熱이 漸熱하여 壯火를 이루는

데 熱鬱하면 火熱이 內壅되고 氣機가 阻滯되어 升降出入이 失傷되어 이로 인한 各種의 病理變化 即 腑氣不降하면 大便秘結, 胃氣上逆하면 惡心嘔吐, 肝經鬱熱하면 肝氣升發太過하여 頭暈 頭痛 耳鳴 目眩 등이 일어난다” 고 했는데 이는 火가 氣의 升降失調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氣升降失調의 傷失로 惹起되는 中風에 있어 여러 學者들이 火의 重要性을 피력한 理由를 알 수 있다.

氣의 升降失調로 본 中風 內因病理의 歸納表



IV. 結 論

以上の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中風의 發生에 있어 內因의 要素를 認識했음에도 不拘하고 金元時代以前 外感流入說이 重視된 것은 人體外邪 即 六淫外感風

邪說의 疾病觀이 優勢했으며 當時代의 正氣虛에 따른 外感 誘入說의 疾病觀을 反映해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2. 中風病機의 素因에 있어 肥滿體質은 虛實의 側面에서 氣機疏通의 失調로서 瘦人體質은 心火와 肝腎精血不足等에 根據한 內氣損傷 內奪厥逆으로 왔고 여기에는 體質의

特性和 더불어 精神的 스트레스가 重要한 要因으로 強調되었음을 알수 있다.

3. 痰, 火, 濕 등은 人體內的 氣血의 升降失調의 病機因子로서 中風發頭에 있어 八綱中 初期 標實證의 側面에서 設定되어진 多元論的 要素로서 그 役割을 지니는 것으로 思料된다.

4. 主氣論은 臟腑 升降失調를 中心으로 氣化學說에 根據하여 本源의 虛證에서 入脚한 中風 病理理論體系中的 하나로 思料된다.

5. 厥逆으로서의 中風病理接近은 氣血 升降運動失調의 '代表的인 病證樣態中的 하나로서 本疾患 對應된 것으로 思料된다.

6. 以上の 結果로 보아 諸家の 中風 內因說은 氣化學說에 바탕을 두고 있고 痰, 火, 濕, 氣 등의 因子는 同一한 事項에 對해 그 接近方式의 多樣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個個의 主張이 矛盾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韓醫學의 全一性의 一面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金秉雲·任宰訓·姜允皓：肝系內科學，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9，pp.452~483.
2. 金完熙：新生理學，서울，慶熙韓醫大 韓方生理學教室，1983，pp.221~224.
3. 金完熙·崔達永：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1985，pp.21~124.
4. 文濬典：東醫病理學，서울，高文社，1990，pp.170~172，225，234.
5. 尹吉榮：東醫學의 方法論 研究，서울，成輔社，1983，pp.23~43.77~94.
6. 李京燮：心系內科學，1986，pp.147~186.
7. 李文鎬 外：內科學，서울，學林社，1986，pp.1825~1873.
8.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1，p.37，38，55，57，304，305.
9. 許 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 重刊，1982，pp.359~478.
10. 金永錫：中風의 病因病理에 關한 文獻의 研究，東洋醫學 學術誌，1981，4：42~53.
11. 具本泓：中風에 關한 臨床的 研究，慶熙韓醫大論文集，1981，4：209~226.
12. 李仁仙外：中風의 臨床的 研究，慶熙韓醫大論文集，1985，8：273~284.
13. 龔廷賢：萬病回春，杏林書院，1972，pp.45~64.
14. 樓英：醫學綱目，人民衛生出版社，1987，pp.290~320.
15.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大成文化社，1984，pp.153~172.
16. 巢元方：諸病源候論，서울，大成出版社，1984，pp.473~490，1051~1052.
17. 宋鶯泳：中醫病因病機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pp.295~297，310~321.
18. 徐靈胎：醫書全集，五洲出版社，卷一，1982，p.64，123，172，卷二，pp.69~74.
19. 李中辛：醫宗必讀，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pp.172~202.
20. 張介賓：張氏景岳全書，서울，杏林書院，1975，pp.114~153.
21. 張路玉：張氏醫通，金藏書局，上冊，1984，pp.43~55.
22. 張伯臬：中醫內科學，人民衛生出版社，1988，pp.451~469.
23. 張從政：儒間事親校註，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4，pp.219~220，229~230 307~323.
24. 張仲景：金櫃要略，서울，東洋綜合通信大學 教育部刊，1974，pp.15~23.
25. 陳師文：太平惠民和劑局方，旋風出版社，1984，pp.21~56.

26. 周命新：醫門寶鑑, 杏林書院, 1971, pp.1~12.
27. 王安道：王履齋匯集(醫部全錄 六册), 서울, 1982, pp.31~42.
28. 王清任：醫林改錯, 台聯, 國風出版社, 1980, pp.40~52.
29. 王壽：外臺秘要 台北, 集文書局, 1984, pp.247~273.
30. 李東垣：서울, 大成文化社, 重刊, 1983, pp.27~34, 511~517, 607~620.
31. 李迪臣：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411~423.
32. 李廷：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1984, 卷一, pp.303~310. 卷二, pp.21~64.
33. 李聽甫：金元四大醫家學術研究院,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15, 18~21, 97~100, 217.
34.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37~44, 146~147.
35. 朱震亨：丹溪心法, 서울, 大成文化社, 1992, pp.67~110.
36.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上册)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p.44~54.
37. 陳夢雷：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pp.1~27 卷七, pp.217~225.
38. 沈全魚：中風證治, 서울, 醫聖堂, 1990, pp.1~76.
39. 章眞如：風火痰瘀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18.
40. 汪昂：醫方集解, 서울, 大聖文化社, 1992, p.279.